

사.심 가득한 드라마 파헤치기 -그녀는 예뻐다 편-

「문화콘텐츠학입문」과 「사회심리학 및 실습」강의페어링

심리학과 201321927 조정은, 윤소연 교수님 지도

강의페어링 하게 된 동기

평소 강의를 들을 때 내 나름대로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보곤한다. 특히 이번 학기 '사회심리학 및 실습'강의를 들으면서 사회심리학이 우리 사회에, 특히 광고나 영화, 드라마 등에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이를 계기로 작년에 수강했던 '문화콘텐츠학 입문'강의를 접목해 최근 인기에 방영된 드라마 「그녀는 예뻐다」를 분석해보며 콘텐츠(드라마) 속 (사회)심리학 이론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대인관계'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드라마에 사.심 채우기



지난 9월~11월까지 방영된 MBC수목미니시리즈(연출 정대윤, 극본 조성희)로 총 16부작, 평균 15%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인기드라마다. 어린 시절 단짝이었던 혜진과 성준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옛날보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혜진은 단짝 하리를 대신 내보낸다. 하리는 자신을 '김혜진'으로 포장해 성준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성준과 혜진은 오해 속에서 'The Most'에서 함께 일하며 계속 부딪히게 된다. 결국 하리의 거짓말은 밝혀지고, 진짜 '김혜진'인 혜진은 성준과의 오해를 풀며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1) 우리는 상대의 어떤 점에서 매력과 호감을 느낄까? (매력/호감의 결정요인)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요인들에는 유사성, 상보성, 상호성, 근접성, 균형이론, 좋은 특성 등이 있다. 이 중 '유사성'은 혜진과 성준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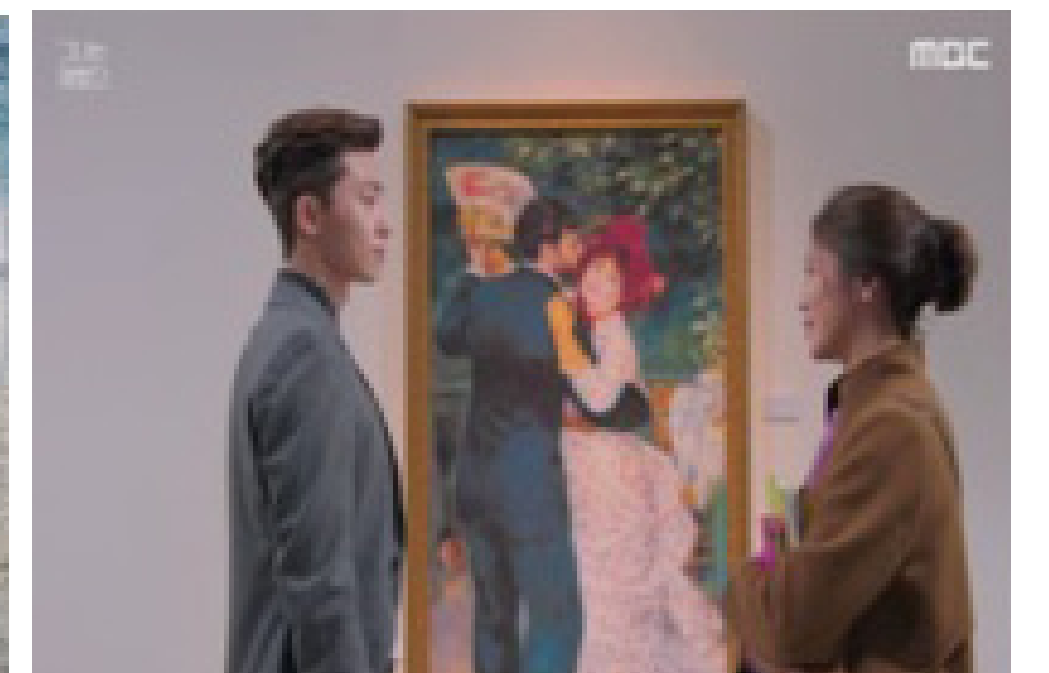
7화 중, 성준과 혜진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각자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한 회상을 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린시절 편지를 주고받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화보컨셉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편지’가 등장, 이를 통해 서로가 편지에 대한 따뜻하고 좋았던 추억을 회상, 공감하게 된다.

또, 혜진의 따뜻한 마음씨는 ‘좋은 특성(성격특성/능력/신체적 매력)’ 중 성격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깊어가는 우리 관계는 어디쯤일까? (Altman & Taylor(1973), 사회적 침투과정)

친교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며, ‘친교관계가 깊어진다’, 즉 서로간에 공유하고 있는 생활/성격 범위가 점점 넓어져 친밀성과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과정으로 서로가 서로의 존재의 핵심으로 깊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침투의 결정적 요인은 ‘상호적인 자기 개방 혹은 자기노출’이다. 1단계는 지향단계로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2단계는 탐색적 감정교환 단계로 조금은 친해졌지만 아직은 공식적인 관계다. 3단계는 감정교환단계로 감정적 교류는 가능하나 아직 내면 깊은 얘기까지는 어렵다. 마지막 4단계는 안정적 교환단계로 서로의 속마음, 소유물에 마음놓고 접근하며 ‘우리’의 개념이 가장 강하다.

혜진과 하리 : 안정적 교환단계

13화 중, “...하리가 널 많이 좋아해...하리 나한테 친구이상이야. 가족만큼 너만큼 소중한데. 근데 내가 지금 너한테 가면 하리가 다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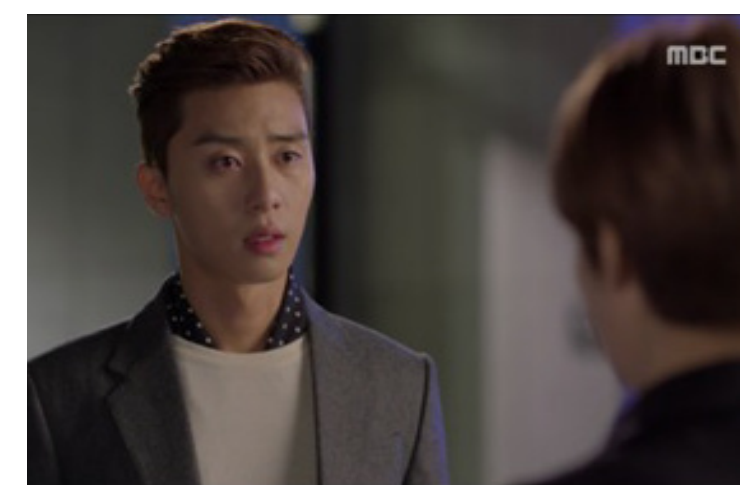
3) 그 때 사과했더라면... (인지적 신연합주의)

대인관계 이론 중 공격성과 관련된 이론으로, 좌절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좌절에 대한 판단을 거치고 공격행동을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여기서 ‘완화단서(적절하고 합당하다고 여겨질 만한 설명)’가 주어지면 공격성이 완화된다.

13화 중, 하리는 성준과 혜진에게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

“...그동안엔 더 더 미안했구.. 꼭 한번 너 보고 직접 사과하고 싶었는데. 미안해, 그동안 너 속여서...”

“...말할 기회는 놓쳤어도 사과할 기회는 안 놓쳐서 다행이야...”



4) 사랑 (Hendrick & Hendrick(1986), 6가지 사랑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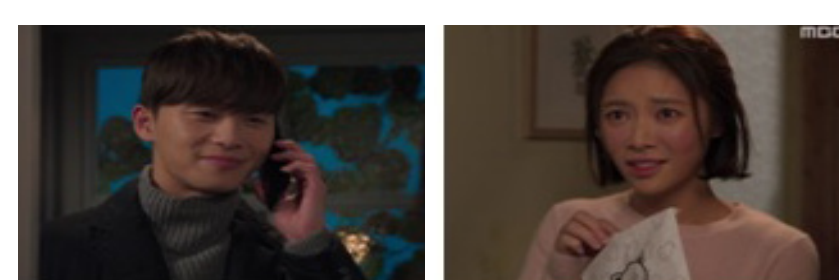
사랑은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낭만적/유희적/우정적/논리적/소유적/이타적사랑으로 나뉜다.

민하리 : 유희적 사랑



1화 중, “만날까 어쩔까 생각 중인 애야...키스를 잘하는지 아닌지 알아야 사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진짜 사랑? 그게 뭐 어떤 건데?...진정한 사랑이네 뭐네 그만 거 다 헛소리야...”



지성준 : 우정적 사랑

11화 중,

“...드디어 찾았네 김혜진...니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네가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든 난 상관 안했을거야...”

13화 중, “...이 얼굴 완전 오랜만이네 아유~ 귀여워...(붕어빵을 주며)아까 아~붕어빵 이랬잖아.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결론

마냥 드라마를 시청하기보다는 내가 배우고 있는 강의를 접목해보니 새로운 시각에서 드라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론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 강의페어링을 통해 드라마가 예쁘고 잘난 외모,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숨겨진 내면’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문화콘텐츠와 사회심리학은 방법은 다르지만 인간의 감정적 요소,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연결고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돌아볼 수 있었다. 이후 기회가 된다면 이후 탐구 보고서 주제로 사랑과 애착을 중심으로 캐릭터를 분석해보거나 다른 사회심리학 이론들을 적용, 혹은 영화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 상황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해보고 싶다.

참고문헌

사회심리학 및 실습(윤소연 교수님) 강의노트



AJOU UNIVERSITY